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선수들이 뽑은 '2021년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 12월6일 열리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가려진다. 사진은 지난해 동아스포츠대상 수상자들. 스포츠동아DB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프로스포츠 '왕별'은 누구냐

12월6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서울서 시상식 야구 축구 등 8개 종목·메디힐 특별상 시상



2021년 대한민국 스포츠를 빛낸 '올해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한국ABC 인증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의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동아스포츠대상'이 올해부터 '마스크 팩 신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과 손잡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가 공동 주최하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올해의 선수'를 선정합니다.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남·여), 골프(남·여)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의 8개 종목별로 '최고의 선수'를 시상합니다. 또 미래의 스타를 꿈꾸며 어려운 여건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스포츠 꿈나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메디힐 특별상'을 시상합니다.

종목별 '올해의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황금열쇠를, 메디힐 특별상에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13회째를 맞은 동아스포츠대상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 연맹·협회의 운영 및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대상 운영위원회가 종목별 '올해의 선수' 후보 및 투표인단을 정합니다. 올해는 투표인단 선수 293명이 종목별로 30~50명씩 직접 참여해 투표를 완료했고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확인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스포츠계 관계자 중심으로 초청하여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2호선 을지로입구역)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메디힐

●주관 : 스포츠동아, 스포엑스컴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청소년대표→드래프트 미지명→ML전전→육군일반병→KT 입단→포수서 투수 전환→마무리 '믿을맨' 우뚝

꿈이 있는 한 포기는 없다 나는 김재윤이다



김재윤(31)은 올해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서 KT 위즈의 순항을 이끄는 주역 중 한 명이다. 1~3차전에 모두 등판해 2세이브를 따내며 팀의 확실한 수호신임을 입증했다. 데뷔 첫 KS를 치르는 압박감을 이겨낸 것도 대단한데, 최상의 결과까지 이끌어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무엇보다 KT의 1군 진입 첫해인 2015년부터 히로아라를 함께했던 멤버이기에 지금의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김재윤은 KT에 입단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휘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에드먼튼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에 선발됐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포수였다. 하지만 2009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하는 시련을 겪었다. 이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나모스백스와 계약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꿨으나, 마이너리그만 전전하다 2012년 귀국했다. 더 이상 허송세월할 수 없어 병역부터 해결했다. 그마저도 국군체육부대(상무) 등이 아닌 육군 1군사령부 의장대, 현역이었다.

이 기간 김재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야구를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기술훈련에 한계가 있었지만,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캐치볼과 스윙, 러닝을 했다.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달랐다. 201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KT의 특별지명을 받았다. 지명 당시 포지션은 투수가 아닌 포수였다. 투수 수업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깨가 워낙 강했던 터라 고교 시절에도 투수로 전향하라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다. 큰 거부

감 없이 새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다. 시속 150km대의 직구는 스피드와 무브먼트 모두 훌륭했기에 메커니즘을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했다. 다행히 김재윤은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이듬해(2016년) 두 자릿수 세이브(14세이브)를 올리며 팀의 마무리투수 역할에도 익숙해졌다. "입단 첫해에는 몸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려 했다"던 김재윤의 놀라운 반전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조범현 당시 KT 감독과 정명원 투수코치도 열정적인 김재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 이제는 KT를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투수로 도약했다. 지난해 팀의 첫 PS 진출과 20세이브의 이정표를 세운 데 이어 올해는 30세이브(32세이브)와 정규시즌 우승이라는 더 큰 성과를 거뒀다. 입단 첫해 빠른 공이 강점이었던 포수 출신 마무리투수가 완성도 높은 변화구(슬라이더·스플리터)까지 장착한, 팀의 우승을 이끄는 수호신이 됐다. 2016시즌 내내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스피리터 장착도 결국 해냈다. 조범현, 김진욱, 지금의 이강철 감독까지 3명의 사령탑을 거치면서 한층 더 단단해졌다. 이 감독의 한마디는 김재윤의 입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김재윤은) 정말 많이 달라졌고, 잘해 주고 있다. 마운드에 올라가면 편하게 경기를 본다. 올 시즌을 마치면 확실한 마무리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시리즈 관련기사 2·3·4면
고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KT 김재윤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깨끗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실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주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